

가톨릭 유치원 교사들의 가톨릭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

김다솔** · 김경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가톨릭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가톨릭 종교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치원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문제는 첫째, 유아 종교교육의 가능성과 교육실천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 가톨릭 유치원의 종교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가톨릭 유치원 교사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어떠한가? 이를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의 가능성과 교육실천에 대한 논의는 마리아 몬테소리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어린이 이해, 로널드 골드만의 종교 사고적 발달이론, 토마스 그룹의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접근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유치원 종교교육 현황은 현직 가톨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현재 가톨릭 유치원에서의 종교교육은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종교교육 시간 부족', '종교교육에 있어서 비신자 부모님과 교사의 잠재적 갈등의 소지가 있음', '가톨릭 종교교육 교재 및 참고 교안의 부족', '관련 교사교육의 부족' 등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이 거론되었다. 동시에 긍정적 측면은 '유아들이 비형식적 교육(종교적 분위기)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학부모님과 입학 시기부터 종교교육에 대한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가톨릭 종교교육이 인성교육 측면에서 누리과정과 조화를 이룬다.' 등이었다.

연구의 제안점은 첫째, 가톨릭 유아 종교교육과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과 가톨릭 종교교육의 인성교육 측면에서의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들의 종교교육 실천을 지원하는 교사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종교적 분위기 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제어 : 가톨릭 유아 종교교육 현황, 가톨릭 유아교육, 유아 종교교육

* 본 원고는 김다솔(2018)의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 김경이)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 제1저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prototype525@naver.com

***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clara90@catholic.ac.kr

I. 서론

가톨릭교회는 교리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실천해 왔다. 이는 현대 가톨릭교회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며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공의회 문헌인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1965)을 시작으로, 교회의 교리교육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한 『교리교육총지침』은 교리교육의 사명을 복음화로 명시하고,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리교육의 대상자들에 이르기까지 교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¹⁾ 문헌에서는 가정과 본당, 학교라는 교육 장소에서 유아와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을 위한 교리교육을 다루고 있다. 특히 유아를 위해서는 가정교육을 강조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에 유념할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교리교육총지침』에서 교육 대상의 연령과 교육 장소에 따른 교리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리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비단 『교리교육총지침』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리교육 문헌이 그러하다. 『현대의 교리교육』과 『교리교육총지침』은 가정을 최초의 교리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또 가정 교리교육의 대체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²⁾

유아를 위한 신앙교육에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황에서 유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을 충실히 실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스도교 문화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유년기 자녀를 본당 주일학교에 등록하는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유년기 신앙교육의 중요성과는 별도로 가톨릭 유치원에서의 유아를 위한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현대의 유아는 과거에 비해 가정이 아닌 보육 기관이나 형식적인 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⁴⁾ 또한 유년기의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형식적인 교육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교육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치원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뿐 아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총지침』(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145-162쪽.

2) 위의 글, 156쪽.

3) 한국 전체 초등부 주일학교 대상자는 2017년 기준으로 151,605명이었으나 실제 주일학교 학생은 94,509명으로 62.3% 정도 등록하고 있다. 참조: 한국천주교회 통계 2017.

4) 도남희, 「영유아의 생활사용 시간과 시사점」, 『육아정책포럼』40(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14), 27-37쪽.

나라 가톨릭 유치원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가톨릭 유아교육 기관의 종교교육 현황과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최송자(1997)⁵⁾, 이웅찬(2005)⁶⁾, 나오진(2012)⁷⁾, 강승훈(2013)⁸⁾의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들은 교사 대상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가톨릭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가장 최근의 연구가 2013년의 연구이므로 유치원 누리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2013년 이후의 유치원 교육 상황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톨릭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가톨릭 종교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가톨릭 유치원에서 종교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종교교육 현황은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종교교육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현재 가톨릭 유치원에서 종교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실천에 대해 조사하였다.

II. 유아 종교교육론 고찰

교육 대상의 연령에 따라 교육 목표나 과정,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유아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유아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에 앞서 유아에게 종교교육이 가능한지, 유아가 종교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유아 종교교육론을 전개하고 있는 마리아 몬테소리, 로널드 골드만, 토마스 그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 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들은 유아를 위한 종교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유아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
- 5) 최송자, 「가톨릭 유치원의 종교교육 현황과 개선방향」(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6) 이웅찬, 「가톨릭계 유치원 종교교육의 실태와 그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대구대교구」(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7) 나오진, 「가톨릭계 유아교육기관의 종교교육 실태: 서울대교구와 의정부 교구를 중심으로」(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8) 강승훈, 「가톨릭계 유아교육기관의 종교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식과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 전주교구를 중심으로」(광주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1.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론

20세기 영향력 있는 유아교육학자 중 한 사람인 마리아 몬테소리는 자신의 유아교육 경험과 실증적 관찰을 통하여 어린이의 생명을 돕는 교육이라는 독자적인 교육 원리를 고안하였다. 어린이의 고유한 특성을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측면에서 발견하여 어린이에게 종교교육이 가능하며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다. 마리아 몬테소리의 유아를 위한 종교교육에서 중요한 개념은 육체적·정신적·영적 존재로서의 어린이와 흡수정신 그리고 민감기라는 개념이다. 몬테소리 교육론에서는 어린이 정신의 발달에 있어서 환경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데 어린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성장하는 정신과 발달하는 육체”⁹⁾라는 두 요소가 통합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¹⁰⁾ 또한 인간 존재의 영적 측면을 어린이 시기에도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몬테소리는 인간을 태아기 때부터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육체적 태아’와 ‘정신적 태아’, ‘영적 태아’라고 이름 붙였다.¹¹⁾

흡수정신이란 인지적인 능력 곧, 기억력의 작용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마음, 정신의 작용으로서 어린이는 환경을 이용하면서 “정신적 근육”을 형성하는데 이 정신적 근육을 흡수정신으로 설명한다.¹²⁾ 흡수정신은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 단계는 출생 후에서 3세 사이이다. 이 시기는 아동의 흡수정신이 가장 강한 시기이며 이때 아동은 환경을 통해 받은 “느낌을 아주 상세하게 거의 다 흡수”¹³⁾하고 느낌을 구체화 시키면서 새로운 느낌을 기존의 느낌 위에 더하게 된다. 첫 단계에서는 사람의 행동, 말과 같은 인간 활동을 흡수한다.¹⁴⁾ 두 번째 단계인 3세에서 6세의 기간은 창조적인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흡수하는 능력이 계속 작용하면서도 “의도적인 상호관계”를 통한 느낌을 받아들이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¹⁵⁾

흡수정신과 함께 몬테소리는 어린이 정신의 또 다른 특성을 ‘민감기’로 설명한다. ‘민감기’는 특정 자극에 대한 민감성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종류의 능력을 특히 발달시키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¹⁶⁾ 몬테소리는 ‘흡수정신’과 ‘민감기’라는

9) 조성자, 『몬테소리 과학적 교육학』(서울: 도서출판신정, 2006), 107쪽.

10) 최영희, 「몬테소리 교육과 어린이의 정신세계」 『가톨릭신학과 사상』50(서울: 신학과 사상학회, 2004), 245-248.

11) 조성자, 「몬테소리의 가톨릭시즘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활동」 『종교교육학연구』3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69쪽.

12) 마리아 몬테소리, 정명진 역, 『흡수하는 마음』(서울: 부글북스, 2014), 44-47쪽.

13) 최영희, 『몬테소리 교육이론』(서울: 디자인클럽아트, 2000), 36쪽.

14) 위의 글, 36-37쪽.

15) 위의 글, 38쪽.

16) 양금희, 『기독교 유아·아동 교육』(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76쪽.

특성을 통해 어린이를 ‘정신적 태아’로서 이해하였다.¹⁷⁾ 정신적 태아로서의 특징인 흡수정신과 민감기는 영적인 태아로서 어린이의 발달을 돕는다. 몬테소리는 종교적 인간학을 바탕에 두고 인간을 ‘영적 태아’로 이해하였는데 종교심을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생각한 것이다. 몬테소리에 의하면 “인간 태아는 존재론적으로 영적”¹⁸⁾이다. 즉 아이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영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자라면서 영적 태아의 본질을 통해 종교적인 존재로 발달하게 된다. 어린이는 영적으로 아직 미완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발달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¹⁹⁾

또한 몬테소리는 어린이의 종교적인 본성을 발달시키는 것에 대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 단계인 3~6세까지는 어린이의 종교적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작업을 시작할 것을 강조한다.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본성은 부모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민감기와 흡수정신이라는 정신적 특성을 통해서 이 종교적 본성이 표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7~12세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작업이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 되는 단계로써 실제로 일상에서 종교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²⁰⁾

몬테소리는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종교교육을 통해 유아기부터 “생명을 영혼에 점화”²¹⁾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열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영양분을 얻기 때문이다. 그런데 몬테소리는 종교교육을 함에 있어서 지식의 전달이나 인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어린이의 생활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²²⁾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에서 생활, 성찬례, 미사해설 등의 요소에 집중하여 종교교육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히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시기와 같은 전례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성찬례에 대한 부분에서는 최후의 만찬과 미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미사의 역사와 여러 요소들, 제대를 준비하고 제대 위에 있는 성물들과 사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몬테소리의 교육 이론은 어린이들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이러한 교육적인 목적에 맞는 역할과 함께 개인적인 자질 또한 요구한다. 교사는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질서가 확립된

17) 위의 글.

18) 조성자, 앞의 글, 206쪽.

19) 조성자, 『몬테소리 교육철학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11, 105쪽.

20) 김상인, 「몬테소리 종교교육에서 전례 교육적 방법 연구」 『누리와 말씀』38(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230쪽.

21) 마리아 몬테소리, 조성자,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서울: 미루나무, 1993), 14쪽.

22) 위의 글.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는 지적 수준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태도, 정신적인 특성”²³⁾이라는 개인의 특성이 올바르게 확립되어야 하며 “신앙, 애정, 겸손, 인내와 같은 덕성”²⁴⁾이 갖추어 질 것을 요구된다. 더불어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특성 또한 요구된다. 몬테소리 교사는 몬테소리 교육의 ‘과학적 교육방법’을 이해하고 교육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몬테소리의 교육적 방법, 철학, 학습과정, 환경구성, 교구와 교재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발달심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²⁵⁾ 이러한 지식과 자질을 바탕으로 교사는 교육 환경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된다. 몬테소리 교육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한 만큼 교사는 먼저 환경을 구성하는 사람이 된다. 아이들이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교구를 준비하며 “문고리, 스위치, 위생적인 부분까지”²⁶⁾ 어린이를 위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된 환경에서 교사는 네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어린이의 발달을 관찰하는 ‘관찰자’와 돌보는 ‘보호자’, 환경과 상호작용을 돕는 ‘촉진자’, 그리고 ‘환경 그 자체’로서의 교사이다.²⁷⁾

곧 몬테소리 교육은 어린이를 정신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어린이들의 타고난 생명을 더욱 자극하고 정상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열려있는 가능성과 발달을 향한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이다.

2. 로널드 골드만 교육론

로널드 골드만 (Ronald Goldman)은 영국의 종교교육학자로 인지 발달적 측면에서 어린이의 종교교육 이론을 전개하였다. 골드만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지적 능력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는 ‘종교적 사고 발달이론’을 전개하였다. 그 단계는 크게 ‘직관적 종교기’, ‘구체적 종교기’, ‘추상적 종교기’로 구분되며 각 단계의 중간 단계를 ‘직관적 종교기와 구체적 종교기의 중간기’, ‘구체적 종교기와 추상적 종교기의 중간기’로 구분하였다.²⁸⁾ 이 분류는 피아제의 분류를 따른 것으

23) 김은화, 「M. Montessori 과학적 교육학에 의한 교사론 연구」 『Montessori 교육연구』8(서울: 한국 Montessori교육학회, 2003), 154쪽.

24) 신보경, 「Montessori의 교사론 연구」(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0쪽.

25) 김은화, 앞의 글, 155쪽.

26) Hildegard Holtstige 저, 박성은 역, 「Montessor 교육학에서 교사론 중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몬테소리 교사의 역할」 『Montessori교육연구』1(서울: 한국Montessori교육학회, 1997), 109쪽.

27) 김은화, 앞의 글, 158쪽.

28) 같은 글.

로 인지발달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골드만의 ‘종교적 사고 발달이론’은 피아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종교교육에 있어서 아동의 인지능력에 초점을 둔다.²⁹⁾ 즉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통해 종교교육에 있어 성인과는 다른 아동의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³⁰⁾

골드만은 어린이가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인지발달적인 관점에서 어린이를 ‘지연된 발달’을 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의 종교적 사고의 발달이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간보다 더 늦어진다는 뜻으로 피아제의 발달단계 보다 종교적 사고 발달단계는 전체적으로 2~3년 정도 지연된 발달을 보였기 때문이다.³¹⁾ 따라서 골드만에게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지적인 접근으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종교교육의 내용이 대부분 추상적인 것이므로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하기 보다는 이성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내용을 선불리 교육하게 되면 잘못된 이해를 지니게 될 수 있다고 염려한 것이다. 어린이의 인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교육을 하게 되면 종교를 거부해 버리는 상황을 염려한 것이다.³²⁾

이에 따라 골드만은 종교교육에 있어 어린이 중심의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전까지의 성경 중심의 교육은 성인들에게 적합한 교육으로써 어린이의 인지발달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주입식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어린이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 이를 통해 그들의 종교적 개념이 청소년기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교육”³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5~7세 정도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은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삶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짓는 교육이 필요한데, “부모의 권위, 자연의 세계, 삶과 죽음, 조직적 종교, 학교 예배”³⁴⁾와 같은 경험들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교육에서 성경을 조금은 인용할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신비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골드만의 종교교육론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성인의 관점에서 준비되고 진행되는 수업이

29) 양금희, 앞의 글, 124쪽.

30) 임창현, 「아동기 심리 발달에 따른 신앙교육방안 연구」(수원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3쪽.

31) 양금희, 앞의 글, 134쪽.

32) 위의 글, 136쪽.

33) Goldman, R.,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4), p.220.

34) 양금희, 앞의 글, 137쪽.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시기 어린이를 위해서는 인지적 가르침을 배제시킨 경험 중심의 가르침을 골드만은 강조하고 있다.³⁵⁾

골드만의 연구는 어린이의 인지적 능력이 과연 종교적 사고를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연구는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성경의 내용을 어린이들이 이해 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청소년기 이전의 어린이들에게는 이러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종교교육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 추상적인 개념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린이의 삶과 밀접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으로 골드만의 연구에서 대상 어린이들에게 질문한 성경 내용이 ‘불타는 떨기나무’,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심’과 같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는 그 수준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1990년대의 ‘어린이 영성연구’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는데 어린이 영성연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도 인지적인 능력과는 별개로 종교적인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종교교육에 있어서 인지능력만이 교육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었다.³⁶⁾

3. 토마스 그룹 교육론

토마스 그룹은 가톨릭 신학자이자 종교교육자로서 그리스도교 신앙교육에서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이끄는 교육을 제안하였다. 그의 교육은 ‘함께 나누는 프락시스(shared praxis)’³⁷⁾라는 원리를 통해 삶과 신앙을 통합하는 신앙교육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토마스 그룹은 특별히 유아 종교교육에 국한하여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로 명명한 그의 종교교육접근이 모든 연령 대상에게 적용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의 교육 실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들의 신앙교육 실천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룹 교육접근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느님 나라를 위한 총체적인 신앙 교육”이다. 그리고 가톨릭교육의 특징을 구현하는 교육접근은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접근이다. 그룹에 의하면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교육접근’은 교

35) 위의 글, 137-138쪽.

36) 위의 글, 139쪽.

37) 토마스 그룹 저, 조영관 외 역,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41쪽. ; 토마스 그룹 저, 한미라 역, 『나눔의 교육과 목회』(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7)

육 참가자들로 하여금 삶을 신앙으로 가져가도록 또, 신앙을 삶으로 가져오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참가자들이 대화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곧 참가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신앙인 그리스도교 비전과 만나고 그 가르침과 지혜를 삶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³⁸⁾

그림은 이러한 교육접근을 “직접 유치원에서부터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학교나 교육기관 같은 정규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에서 그리고 주일학교나, 신앙교육, 성경모임, 피정과 같은 비정규적이고 비형식적인 교육 상황에서도 적용해 왔다”고 한다.³⁹⁾ 실제로 그는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 성인을 대상으로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접근을 실행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유치원 교육을 위한 두 권의 교재를 집필하기도 하였다.⁴⁰⁾ 그는 자신의 실천적 경험과 이론적 근거를 통해 이와 같은 신앙교육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대상에게 적용가능하다고 말한다.⁴¹⁾

그림 교육론의 또 다른 특징은 학생이 주체로서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 모두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개개인이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 있는 만큼 ‘하느님 나라를 위한 총체적 신앙교육’에서 학생은 분명히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교육 주체로서의 학생과 교사의 관계 그리고 상호작용이 강조된다.⁴²⁾

그림의 교육론이 유아 종교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린이의 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가톨릭 신앙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에서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의 분위기가 가정의 생활방식과, 윤리, 서로에 대한 이해, 가정의 인생관 등을 수반하며 구성원에게 이러한 요소들이 스며들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⁴³⁾

종교적 분위기 형성은 가정 뿐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중요하다는 그림의 주장은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도 가정과 학교, 본당과 같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38) 조영관 외, 위의 글, 386-387쪽.

39) 위의 글, 18쪽.

40) 토마스 그림의 유치원 교재로는 *Coming to God's Word*(New York: Sadlier 1988), *God with us* (New York: Sadlier 1982)가 있다.

41) 조영관 외, 앞의 글, 402쪽.

42) 이은규, 「기독교교육을 위한 토마스 그림의 교육 사상」 『신학지평』16(안양: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2003), 113쪽.

43) 조영관 외, 앞의 글, 305쪽.

어디서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든 적용 가능할 것이다.

위의 이론을 종합하면 유아에게는 영적인 본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유아의 인지적 능력이 성인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곧 종교교육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상황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몬테소리 역시 전례력과, 미사와 같은 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골드만 또한 생활과 밀접한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바 있다. 그리고 토마스 그룹의 교육론을 통해 단순히 지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이 아니라 삶과 밀접한 방법으로 종교교육이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가톨릭 유치원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실천 현황

1. 조사 방법과 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 유치원 종교교육에 대한 현장 사례와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교사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4개의 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로 개인의 종교성향이 기초적 수준인 외현적인지, 건강하고 성숙한 내재적인지를 참고할 목적으로 ‘종교성향 척도 조사’⁴⁴⁾를 함께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7년 6월에서 2017년 11월 기간 중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 내의 가톨릭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 11명이며 참여 교사들의 경력은 1년에서 24년까지이다. 경력과 함께 세례 시기와 본당 활동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44) 종교성향척도는 올포트&로스(Allport & Ross)의 내재적-외향적 종교성향척도, 페인(Feign)의 외향적 종교성향척도, 호그(Hoge)의 내재적 종교성향척도 등을 참고하여 신영민 외의 연구인 「한국판 내재적-외향적 종교성향 척도의 개발 및 표준화 예비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종교성향척도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표 1〉 인터뷰 응답자의 특성

대 상	경력 및 직책	세례시기 / 본당활동	종교성향 질문에 대한 주요 응답
1	2년 교사	유아세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연합회	▪ 주일미사에 반드시 참석 ▪ 신앙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노력. 실제로 일상에 많은 영향을 줌 ▪ 성당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좋은 곳 ▪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관습적이거나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님
2	4년 교 사	유아세례 주일학교 교사	▪ 주일미사에 반드시 참석 ▪ 신앙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노력하며 하느님의 현존을 느낌 ▪ 신앙이 삶에 기본이 됨 ▪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안을 주는 것. 기도의 목적은 평안한 삶 ▪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 신앙을 설명할 기회가 있어도 설명하지 않겠음
3	3년 교사	유아세례 청년 성가대	▪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일미사에 참석 ▪ 신앙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노력. 실제로 일상에 많은 영향을 줌 ▪ 기도는 관습적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안 ▪ 종교집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도록 돕기 때문.
4	3년 교사	유아세례 주일학교 교사	▪ 주일 미사에 늘 참여하는 것은 아님 ▪ 신앙이 일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며 실제로도 종교적 신념이 삶의 태도를 구성함 ▪ 기회가 되면 비그리스도교인에게 신앙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겠음 ▪ 성당은 사회적 관계를 위한 좋은 장소 ▪ 신앙공동체 일원과의 관계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임
5	11년 원감	유아세례 경력 없음	▪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일미사에 참석 ▪ 신앙이 일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며 실제로도 종교적 신념이 삶의 태도를 구성함 ▪ 성당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장소이지만 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님. ▪ 종교를 믿지만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음
6	1년 교사	8세 이전 주일학교 교사, 청년 성가대	▪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일미사에 참석 ▪ 종교가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음 ▪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안. 기도의 목적은 평안한 삶 ▪ 종교집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도우므로

7	1년 교사	3세 /청년 전례단 청년성서 모임	▪ 주일 미사는 반드시 참석 ▪ 신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며 실제로도 종교적 신념이 삶의 태도를 구성함 ▪ 하느님의 현존을 자주 느끼며 신앙서적을 자주 읽고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와 묵상)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함. ▪ 기회가 되면 비그리스도교인에게 신앙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겠음 ▪ 성당은 사회적 관계를 위한 좋은 장소 ▪ 기도의 목적은 고통을 줄이고 위안을 얻기 위함
8	7년 교사	4년전 성인세례 경력없음	▪ 주일 미사에 잘 참석하지 않음 ▪ 신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하느님의 현존도 느끼지 않음 ▪ 종교의 중요한 목적은 위안을 주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평안한 삶에 있음 ▪ 기도를 관습적으로 함
9	4년 교사	3년전 성인세례 경력없음	▪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일미사에 참석 ▪ 종교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는 잘 모르겠음 ▪ 종교는 일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신앙생활을 위해(기도와 묵상)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함. ▪ 종교와 기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단순히 평안한 삶을 위해서나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10	20년 원감	23년 전 성인세례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	▪ 주일 미사는 반드시 참석 ▪ 신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 실제로도 종교적 신념이 삶의 태도를 구성함 ▪ 하느님의 현존을 자주 느끼며 신앙서적을 자주 읽고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와 묵상)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함. ▪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기도의 목적은 고통을 줄이고 위안을 얻기 위함 ▪ 종교집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도록 돕기 때문.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단순한 친목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님
11	24년 원감	13년 전 성인세례 경력없음	▪ 주일 미사에 늘 참여하는 것은 아님 ▪ 신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며 실제로도 종교적 신념이 삶의 태도를 구성함 ▪ 신앙생활을 위해(기도와 묵상)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함. ▪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안을 주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평안한 삶

2. 응답 결과

1) 신앙이 교육자의 삶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신앙이 ‘일상생활, 교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① ‘교사이기 때문에 신앙을 의식하고 유아를 대하게 된다.’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신앙을 의식하고 유아를 대하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이는 교사라는 역할 수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신앙 지식이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의식은 결과적으로 교사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교사이기 때문에 신앙을 의식하고 유아를 대하게 된다.’는 응답을 한 교사들은 모두 ‘신앙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고 또 실제로도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다.

일상적으로는 양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교육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하면서 신앙을 생각하게 되고 생활화가 되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종교교육을 잘 해주고 싶었다.

일상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느님을 더 의식 하게 되었고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고, 교사를 대하는데 있어서 좀 더 반성하게 되었다.

신앙으로 인해 미사의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없이는 거짓말을 하는 느낌, 찔찔함이 있었으나 신앙심이 생기고 나서는 자신 있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성당 유치원이기 때문에 신앙을 의식하게 된다.’고 답한 이들은 특히 교육 환경이 가톨릭이라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적인 영향이 유아들에게 종교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교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답한 교사들은 주일 미사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하고, 신앙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며 실제로도 종교적 신념이 삶의 태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교사의)신앙심이 깊더라도 신앙에 대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라

면 힘들 것 같다. 성당 유치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당을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으며, 조금 더 배려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성당 유치원 생활이 신앙과 연관되어 있고 교육에 있어서도 신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도 힘이 난다. 성당이 가까이 있기도 때문에 개인적으로 든든하고, 아이들과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② ‘신앙으로부터 교육 활동에 힘을 얻음’

‘신앙으로부터 교육 활동에 힘을 얻는다’고 대답한 이들은 일상과 신앙생활 그리고 교사생활을 구분하기보다 통합하려는 관점에서 응답 하였다. 신앙이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 일상에는 교사생활 역시 포함된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의 교사경력은 한명을 제외하고는 20년 이상이었고,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해 온 교사들이었다. 종교성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신앙이 일상에 많은 영향을 발휘하며’, ‘신앙생활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매일 출근길에 매일미사를 읽으면서 출근하고 그 영향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유치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신앙 때문에 임신 중에도 미사에 가고, (나의)아이가 저녁마다 같이 기도할 때, 남편이 세례를 받을 때 모두 감사한 일이었으며 유치원 졸업생들이 선생님 기도 덕분에 잘되었다며 찾아올 때 감사하다

일상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복기도를 하면서 신앙을 되새기는 것 같다.

③ ‘신앙은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앙은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한 응답자들은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신앙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지 않았거나,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이들이었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 모두가 ‘신앙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으며’, ‘하느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안을 주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평안한 삶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쁘다 보니까 그럴 사이가 없다. 오히려 예전에는 신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바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유치원에 계신 분들이 다 신자인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신앙적이라기보다 일로 다가온다.

신앙이 일상생활, 교사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대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특히 '일상에 힘이 되며 유치원 생활에 있어서도 교육을 할 때, 동료 교사를 대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별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신앙을 일로 받아들이면서 힘들다'는 응답도 있었다.

2) 유치원의 종교교육 현황에 대한 인식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종교교육 현황', '종교교육과 관련한 교사 교육 유무',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 개인의 의견'에 대해 질문하였다.

(1) 가톨릭 종교교육과정 운영 현황

① 정기적이며 교육계획 안에 포함된 종교교육 및 전례력에 따른 종교행사 진행

가톨릭 유치원 가운데는 종교교육 시간을 교육 계획 단계에서 정하고 별도의 수업 시간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종교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종교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례 시기별로 부활절,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애국조희시간이나 언어전달 시간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만 4세, 5세 모두 연간 교육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종교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교회 전례력에 따라 부활, 성탄, 성월에 관한 교육을 하며 아침 기도, 식사 전후 기도를 진행하며 만 5세는 종교교육을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교안이 따로 있고 일주일에 한번 5, 6, 7세 모두 진행하지만 교사가 수업하지 않고 따로 수녀님께서 성경 이야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강, 종강 때에는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해 주시며 부활, 성탄 행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함께 기도한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4번 정도 교육을 진행하며, 두 번은 교사가, 두 번은 원장

수녀님이 진행한다. 일상적으로 아침에 등원하면 축복기도를 담임교사가 해주며 식사 전후기도, 일과 시작 전 기도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대표로 하고 있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며 행사를 위해서,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이를 위한 기도를 한다. 전례력에 따른 종교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학식과 같은 행사 때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다.

② 종교교육 시간이 비정기적이며 개강·종강 미사 및 성탄과 부활시기의 종교행사를 집중적 활용

가톨릭 유치원 가운데는 정규 수업으로 종교교육을 하기 보다는 생활적인 면과 더불어 부활절, 성탄절 등의 전례 시기와 각 성월에 따른 종교행사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도 있었다. 이는 종교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교육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종교교육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안이나 월안에 포함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수녀님이 성경을 읽어주시고, 부활, 성탄과 같은 행사 전에 수녀님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신다. 생활적으로는 식사 전후 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

교실에 성상과 십자가가 있고, 아침기도, 식사 전, 후 기도를 한다. 별도의 커리큘럼은 없고, 부활절, 성모성월, 성탄 등의 행사 위주로 진행된다.

정규 수업은 배정되어 있지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수녀님께서 동화를 읽어 주시고, 성월에 따라, 성탄이나 부활절에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등원 후 기도, 식사전후 기도를 일반적으로 진행한다.

③ 종교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교육 계획안이 없으며 성상, 아침 인사, 식사기도 등의 생활 교육을 집중적으로 활용

가톨릭 유치원 가운데는 종교교육 시간이 배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해진 교육과정 없이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등·하원 시, 식사 전·후 등의 기도를 하는 형식으로 생활 가운데 종교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기적인 교육이 배정되어 있으며 특히 월요일 애국조회 시간 이후 항상 진행하지만 특별한 계획안은 없다. 성가를 배우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식사전후 기도, 등원, 하원 때 성

모상 앞에서 성모님께 인사드리기도 한다.

(2) 종교교육과 관련된 교사교육 여부

① 유치원 자체 교사교육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사교육을 하는 경우는 주로 행사 전에 수녀, 선배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성월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녀님께서 교육을 진행하신다.

전에는 노트담 수녀회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선배 교사가 직접 후배교사를 교육한다.

② 외부기관 교육 의무참여

외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비정기적,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교육 사례는 몬테소리 교육으로서, 이 과정은 종교교육에 관한 내용 외에도 몬테소리 유아교육과정도 포함하여 집중적인 연수가 이루어진다.

서울교구 교사연수를 다녀왔고 몬테소리 연수를 통해서 종교교육을 하기도 한다.

유치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종교 행사 전에 설명을 듣거나 원장 수녀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신앙에 대해 말씀 해 주신 적이 있다.

생태영성 연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교구에서 하는 교육에 다녀온 적이 있다.

주말에 피정이나 성지순례를 다녀오거나 수도원 연수, 장상연합회, 교구 유아부를 통한 연수를 받았다.

③ 별도 교사교육 없이 자율적 참여

유치원에 따라 교사의 종교교육 실천을 위해 유치원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별도의 교사교육은 없고,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해진 연수는 없지만 교사 개인이 필요하다면 요청에 따라 서울대교구 유아부

연수, 노틀담 연수, 몬테소리 연수 등을 보내준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3)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 의견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 개인의 의견은 어떠한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며 응답하였다. 즉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평가, 연구 참여자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요소, 교사교육에 대한 평가 및 요구 등에 대해 응답하였다.

①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응답자 중 세 명은 현재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유치원에서의 종교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유치원의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의견이 유치원의 현재 종교교육 정도와 부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치원의 종교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의 수준이 적당한 것 같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 위주의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내용이 어렵다 보니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걱정된다.
현재의 (유치원에서)종교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보다 체계적인 종교교육 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보다 체계적인 종교교육 과정운영에 대한 의견에서 교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생활과 종교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종교교육 과정이 아이들에게 매력적이고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종교교육 과정과 유치원 누리과정 사이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회력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특히 생활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생활에 종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좋겠다. 3년 동안 전례력에 따라 종교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전년도와 전례력을 금년까지 기억한다. 이것이 앞으로 이어지면 신앙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재 종교교육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

유치원에서의 종교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이들에게 매력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추가해서 교육하거나 행사에 집중하고 마는 부분이 현재 있기 때문에 향후 종교교육 과정에 편성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교리적인 내용 뿐 아니라 수업 외에서 다룰 수 있는 인성, 다양한 덕목들은 수업 시간외에 따로 교육하면 좋겠다.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탄력적인 교과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다.

③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에는 종교교육을 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수업을 준비해야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교육 모델이 될 만한 교안이나 교재를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을 위한 종교교육 연수가 필요하며, 올바른 신앙에 바탕을 둔 종교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를 위한 신앙교육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가 본인의 힘만으로 종교교육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에 대한 자료와 교사교육을 지정해 주면 교사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에서 찾는 자료는 한계가 있고 자료들도 유아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

예전에는 교사들이 따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주일학교 월례교육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다.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이다.

성당 유치원이다 보니까 종교행사에 대한 의미 없이 그냥 행사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종교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교사들이 일반적인 행사로서 받아들이는 점이 문제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사들 개인이 신앙에 바탕을 둔 교육을 해야 한다. (환경을)꾸미고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교사가 느끼지 않으면 단지 행사로 끝나게 된다.

④ ‘비신자 학부모의 부정적인 의견이 조심스럽다.’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우려와 종교교육 상황에서의 어려움은 누리교육과정을 시행함에 따른 시간적인 한계 뿐 아니라 비신자 학부모와의 갈등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유치원에 따라 유아가 입학 할 때, 학부모로부터 종교교육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유치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치원도 있었다. 그런데 동의를 구한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사들은 비신자 학부모의 종교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어느 정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신자인 부모님들은 이러한 종교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사전 협의가 있어야 조금 더 당당하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교육을) 하기에 교사 입장에서 불안하다.

종교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편해 할 것 같다.

그러나 가끔 종교교육에 있어서 과한 부분이 비신자 부모님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천주교와 접점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 성지순례를 안 보내려는 분도 계시고, 종교 행사 때 안 보내시려는 분도 계시다.

⑤ ‘종교교육은 아동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도움이 된다.’

종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은 유아에게 뿐 아니라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에게도 미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종교적 교육 분위기 형성이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성당 부속 유치원으로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종교교육을 하면서 종교적 교육 분위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이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해당된다. 이런 분위기에 노출 되는 것은 성인들, 곧 신자 교사나 비신자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비신자 선생님도 가톨릭 용어와 분위기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사들의 답변은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인이 재직하는 유치원의 현행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활동의 부족,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미비, 아이들 수준에서는 내용이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교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교사를 위한 교재나 교안 같은 자료의 부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의 미비함

을 지적하였으나 동시에 종교적 분위기가 교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염려가 되는 사항으로는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종교교육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비신자 학부모들이 종교교육을 부정적으로 바라 볼 것 같다고 염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4)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실천이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

교사 개인은 종교교육/신앙교육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종교교육/신앙교육이 교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개인의 본당 활동 경험이 종교교육에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서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에 대한 용어를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사들이 용어의 구분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응답에서도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두 용어 모두 가톨릭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 종교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1) 종교교육/신앙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

종교교육/신앙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종교교육/신앙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① 신앙교육/종교교육은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교육

신앙교육/종교교육은 예수님의 현존과 하느님에 대한 느낌을 받도록 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신앙교육의 믿음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는 의견인 것이다. 의견을 제시한 교사들은 모두 유아세례를 받았고 주일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모두 신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도록 노력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교사들이었다.

하느님에 대한 그 무엇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다. 이는 인성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며 종교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차분해 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더 볼어 아이들이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다.

신앙교육은 예수님의 현존을 믿게 하는 것인 것 같다. 그러나 종교교육을 하는 경우는 신자인 아이들에게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신앙교육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교육이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표인 것 같다. 그리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교구나 교사교육이 필요하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신앙교육/종교교육은 정서적 안정을 얻도록 하는 교육

정서적 안정이 신앙교육/종교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개인의 신앙 체험과 연결하여 스스로가 신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듯이 유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이 응답자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안을 주는 것이며 종교 집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신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은 만큼 아이들도 이런 느낌을 받으면 좋겠으며, 신앙을 통해 어려서부터 좋은 것을 얻으면 좋겠다. 가톨릭 유치원에서 일하는 것도 신앙교육을 하기 위함이라는 소명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환경에서는 아이들에게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신앙교육/종교교육은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신앙교육/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을 연결해서 응답했는데 이는 누리과정과의 조화 뿐 아니라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종교교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응답을 한 교사들은 세례 시기와 교사경력에서 모두 다양했으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뿐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신앙교육/종교교육이 인성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다.

신앙교육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교육이면서 사랑이 바탕이 되는 교육으로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커갈 수 있는 교육이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식사 전 기도, 전례 같은 것이 강압적이 되고 너무 주가 되어버리면 학부모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다. 그러므로 인성교육과 예수님 생애를 연관 지어서 교육하면 좋겠다.

신앙교육은 인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지만 잘못하면 주입식 교육이 될 것 같다. 따라서 교리내용에 대해서는 영유아보다 초등학생 때가 더 적합한 것 같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느님을 강조하기보다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때 단어 사용을 성서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인성교육 할 때 예수님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하기도 한다. 이렇게 신앙교육은 실생활에 믿음을 녹여주는 교육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인성교육과 연결지어서 하고 있다.

종교교육은 곧 인성교육이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 예로 아이들끼리 화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화해를 한다든지,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종교교육에 있어서 교사교육이 중요한데, 교사가 종교교육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예전의 신앙교육은 교리적인 내용을 외우도록 하고 신자수를 늘리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요즘은 종교교육을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본다. 성인(聖人)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위인처럼 접근하기에 비신자 부모님의 거부감이 덜하고,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종교교육의 인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종교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안전이나, 소방 체험학습에 있어서 실제로 방문해서 전문가와 함께 체험을 진행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계기가 되듯이, 전문적이고 사명감이 있는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면 아이들이 종교교육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 같다.

④ 신앙교육/종교교육에 대하여 표현하기 어렵다.

신앙교육/종교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응답자는 최근에 세례를 받았으며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으나 신앙생활에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한마디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종교교육에 있어서 일반적인 결과물 위주의 수업보다는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연계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충분히 종교 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시간이 필요하다.

종교교육/신앙교육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종교교육/신앙교육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하였다. 특히 대다수의 교사들은 종교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교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교육의 인성교육 측면이라고 답하였다.

교사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면, 첫째, 비신자 부모와의 종교교육 논의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종교교육에서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인격적 측면에서 종교교육을 접근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넷째,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의미를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교사에 따라 종교교육의 실천이 각기 다르므로 보다 효과적인 종교교육을 위해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2) 종교교육의 실천을 통해 교사가 받는 영향

종교교육이 ‘교사 본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은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잘 모르겠다.’와 기타 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종교교육의 실천은 교사 자신의 교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됨

교사는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친다. 종교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종교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곧 교사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도 교리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응답한 교사는 3~4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유아세례를 받았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본인도) 더 알게 되는 것 같다. 성모성월 준비를 하면서 왜 성모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성경을 좀 더 다시 보게 되었다. 행사와 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교리 지식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나도)아이들과 함께 배워간다.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 주려면 나도 알아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검색하고, 찾아보고, 나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유아세례를 받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알게 되었다.

② 종교교육의 실천은 교사 자신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됨

응답자들은 교리에 대한 이해가 곧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도 연결된다고 대답하였으며, 종교교육에 있어서 유아들의 반응이나 답변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을 한 교사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신앙교육을 하면서 지혜를 얻고, 더 (신앙적으로)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

아이들이 일반 교육에 대해 보이는 반응보다 신앙교육을 할 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여주거나 교육 내용에 의문을 품는 반응을 통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종교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답변들이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하느님을 생각해야 할 때 떠오른다.

종교교육에 있어서 나도 종교적인 분위기에 노출이 되고, 교육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다짐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종교교육과 신앙 사이에) 연결 고리가 생기는 것 같다.

③ 종교교육의 실천은 교사 자신의 신앙 공동체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줌

종교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교사 자신의 개인적 교리 지식, 신앙적 차원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보다 확장된 영역 즉, 개인의 본당 공동체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응답자는 주일학교 교사 경력에 있었으며 종교집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도록 돕기 때문이긴 하지만 신앙의 목적이 단순한 친목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유치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당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사 때 반주하는 것을 듣거나 봉사자가 오지 않으면 대신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④ 종교교육은 지속적인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줌

종교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종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는 응답이 있었다. 즉 종교교육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특히 유아들은 신앙

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쉽게 공유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주일학교(교사)때는 초등부만 보았는데, 주일학교는 성당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유치원)는 성당에 다니지 않거나,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달랐던 점이 아이들이 예수님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이었다. 수녀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7살 아이가 동생한테도 알려주는 모습을 볼 때 ‘저래서 (교육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종교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으로 많은 교사들이 신앙적으로, 교리 지식적으로도 도움을 받는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종교 교육적 분위기에 있어서 유아 뿐 아니라 교사도 영향을 받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3) 본당 활동이 종교교육 실천에 미치는 영향

본당 활동이 종교교육의 실천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단지 지식적인 도움 뿐 아니라 종교교육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① 주일학교 교사 활동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됨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통해서 특히 교리나 성경에 대한 지식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답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교육 활동을 유치원 종교교육에 적용시키기도 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월례교육에서 배운 교리지식과 성경지식을 잊지 않고 유치원 종교교육 때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통해 여러 활동들을 배웠고 이를 유치원 종교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었다.

② 청년성서 활동이 성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됨

종교교육 상황에서 성경에 대해 가르치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울 뿐 아니라 청년성서 활동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청년성서모임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였으며 이것이 종교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답변이었다.

그전까지는 평생을 성당을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듣긴 했지만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청년성서모임을 하면서 사람들과 나눔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되니까 나만의 생각이 생겼다. 이것이 유치원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성서모임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알맞은 것 같다.

청년성서모임에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몸에 받아들이는 듯 한 느낌을 받았고 이것이 매일미사를 통해 성경 말씀을 자주 읽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며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③ 주일학교 교사 활동이 교사의 태도에 대해 숙고하도록 도움

주일학교 교사 활동이 교사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숙고하도록 돕고, 다른 여러 교육과 활동을 통해 이를 더 키워 나갈 수 있어서 현재의 유치원 교사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또, 본당 교사회를 하면서 진정한 교사란 어떤 사람인지 느끼게 되었다.

월례교육을 받거나 지구 활동을 하면서 교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신앙활동을 하면서 믿음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경험이 신앙적으로도, 일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IV.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 유치원 교사들이 가톨릭 종교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

고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적 탐색으로 유아에게 종교교육이 가능한지 마리아 몬테소리, 로널드 골드만, 토마스 그룹의 논의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린이들은 본성적으로 영적이기에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지적 수준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생활과 밀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가톨릭 유치원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가톨릭 종교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의 가톨릭 종교교육 현황’,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 ‘종교 교육/신앙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 이다.

첫째,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의 가톨릭 종교교육 현황’에 대해 교사들은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형식과 방법은 모두 달랐다. 공통점은 교실이나 복도와 같이 유치원 곳곳에 성상과 십자가가 있고 식사 전후 기도를 하는 점이었다. 종교교육을 연간 및 월간 교육과정 계획안의 정규 시간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성월이나 성탄, 부활절과 같이 전례력에 따라서 행사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다. 교육 내용에 관해서는 성가를 배우거나, 성경동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례력에 따라서 행사 전후로 종교행사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은 주로 교사와 원장(수녀, 일반 신자), 종교교육 담당 수녀에 의해 이루어졌다.

둘째,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에 대한 응답은 다양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종교교육이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미비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종교교육과정 운영에 부족함이 있다’, ‘종교교육에 대한 자료와 교사교육이 부족하다’, ‘교사 개인의 소명의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교육 내용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종교교육 시간이 부족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교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종교적인 분위기를 통해 유아와 교사 모두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개인적으로 종교교육/신앙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교사 개인은 종교교육/신앙교육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종교교육/신앙교육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였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지만 종교교육의 필요성에는 조사 참여 교사 모두 공감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많은 교사가 가톨릭 종교교육을 인성교육과 연결하여 실시하면 좋겠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답에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가톨릭 종교교육이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교리적 내용은 비신자 유아에게 강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학부모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누리과정 도입으로 종교교육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리과정 안에 녹아드는 방법으로 가톨릭 종교교육을 인성교육 측면에서 실시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제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가톨릭 유치원 종교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톨릭 유아 종교교육과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현재 가톨릭 유치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형식적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형식적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교육 실체에 있어서도 교재를 사용할 때가 있는 데, 이 경우 교사가 자체적으로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교재의 사용과 그에 따른 교육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종교교육 과정 없이 비형식적인 교육만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따라서 유치원의 각기 다른 상황을 위해 다양한 교육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톨릭 종교교육 모델이 개발된다면 교사들이 개별 유치원 상황에 맞는 가톨릭 종교교육을 실천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교사들이 가톨릭 종교교육이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대로 누리과정과 종교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조화를 위한 인성교육 측면과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톨릭 종교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동시에 누리과정으로 인해 종교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한 만큼 누리과정과 가톨릭 종교교육을 인성교육 측면에서 연계시키면 누리과정과 가톨릭 종교교육에 있어서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 시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가톨릭 교육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길러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자기이해와 함께 타인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는 사회적인 측면과의 연계가 누리과정과의 연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 오리라 기대한다.

셋째, 교사가 종교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사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톨릭 유아 종교교육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사교육과정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톨릭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교구와 여러 수도회가 주관하는 교사교육이 존재하며 유치원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 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이를 통해 교리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교육 뿐 아니라 가톨릭 유치원 교사 간의 긍정적 교류를 통한 교사 학습 공동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통합 교사교육과정의 개발과 함께 일정한 주기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사들이 교안을 작성하고, 실제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교사 역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넷째, 유치원의 종교적 교육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물리적 환경이 신앙의 분위기로 조성되면 유아들은 신앙의 여러 상징들을 친근하게 여기게 되고, 교육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제와 수도자의 복장, 전례에 따라 달라지는 색깔의 복장이나 교실의 십자가와 성상, 유치원 입구의 성모상 같은 환경 하나 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유아로 하여금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정서적 분위기와 물리적 환경에서 종교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형식적 교육과정과 비형식적 교육과정의 상호 호혜적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가톨릭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사목』제57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8).
- 강승훈. 「가톨릭계 유아교육기관의 종교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식과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 전주교구를 중심으로」,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상인. 「몬테소리 종교교육에서 전례 교육적 방법 연구」『누리와 말씀』38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 김은화. 「M. Montessori 과학적 교육학에 의한 교사론 연구」『Montessori 교육연구』8 (서울: 한국Montessori교육학회, 2003).
- 나오진. 「가톨릭계 유아교육기관의 종교교육 실태: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도남희. 「영유아의 생활사용 시간과 시사점」『육아정책포럼』40(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14).
- 마리아 몬테소리. 정명진. 『흡수하는 마음』. 서울: 부글북스, 2014.
- 마리아 몬테소리. 조성자. 『어린이 발견』. 서울: 창지사, 1996.
- 마리아 몬테소리. 조성자.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 서울: 미루나무, 1993.
- 박성은 역. Hildegard Holtstige 저. 「Montessor 교육학에서 교사론 중 가정과 어린이

- 집에서의 몬테소리 교사의 역할』『Montessori교육연구』1 (서울: 한국Montessori 교육학회, 1997).
- 신보경. 「Montessori의 교사론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양금희. 「“어린이 영성(Children's Spirituality)” 연구의 어린이 영성 이해와 어린이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장신논단』38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2010).
- _____. 『기독교 유아, 아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이은규. 「기독교교육을 위한 토마스 그룹의 교육 사상」『신학지평』16 (안양: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2003).
- 이응찬. 「가톨릭계 유치원 종교교육의 실태와 그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대구대교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주하. 「M. Montessori의 정상화(Normalization) 개념의 구조」『Montessori교육연구』5 호(서울: 한국몬테소리교육학회, 2000).
- 임창현. 「아동기 심리 발달에 따른 신앙교육방안 연구」,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교인 교육에 관한 선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조성자. 「몬테소리의 가톨릭시즘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활동」『종교교육학연구』3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_____. 『몬테소리 과학적 교육학』. 서울: 신정, 2006.
- _____. 『몬테소리 교육철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2011.
- 최송자. 「가톨릭 유치원의 종교교육 현황과 개선방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최영민 · 김영미 · 이정호 · 이기철. 「한국관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 척도의 개발 및 표준화 예비연구」『신경정신의학』 41(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2).
- 최영희. 「몬테소리 교육과 어린이의 정신세계」『가톨릭신학과사상』 50 호(서울: 신학과사상학회, 2004).
- 토마스 그룹. 이기문. 『기독교적 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3.
- 토마스 그룹. 조영관 외.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 토마스 그룹. 한미라. 『나눔의 교육과 목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1997.
- Ronald Goldman,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4.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한국 가톨릭 유아교육 지침서』.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7120&bid=13007110
 (2018.10.28.)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200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교리교육총지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2017 한국천주교회 통계 http://www.cbck.or.kr/bbs/bbs_list.asp?board_id=K7200

2017 청소년사목 현황 <http://www.eduseoul.or.kr/main.asp> (2018.11.10.)

원고접수일: 2019년 1월 14일 / 심사일: 2019년 1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16일

연구자 소개 : 김다솔

① 전공 : 실천신학 / 소속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② 관심영역 : 가톨릭교육, 가톨릭유아교육

③ E-mail : prototype525@naver.com

연구자 소개 : 김경이

① 전공 : 교육학 / 소속 :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② 관심영역 : 가톨릭교육, 가톨릭신앙교육, 평생교육, 교사교육.

③ 주요논저 : 『가톨릭신앙공동체 성인종교교육의 실천적 교육모델』, 『다문화사회와 가톨릭의 종교교육』,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가톨릭교육의 역할』,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

④ E-mail : clara90@catholic.ac.kr

Abstract

A Study of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atholic Kindergarten
Teacher about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Kim, Dasol · Kim, Kyungyee

Archdiocese of Seoul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kindergartens and suggest what the teachers should be supported by. Accordingly,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 First, what is under discussion on the possibilities and practices of childhood religious education? Second,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childhood religious education at Catholic kindergartens in Seoul diocese, Korea? Third, how do the teachers in Catholic kindergartens understand and practice childhood religious education?

I referred the possibilities and practices of religious education for children to the theories of Maria Montessori, Ronald Goldman and Thomas Groome. Based on these theoretical foundations, I looked into the current state of Catholic childhood religious education and had in-depth interviews with teachers on how they understand and practice Catholic childhood religious education. The questions for interviews are categorized as four main parts: 'personal characters', 'attitudes toward faith', 'the current state of religious education in kindergartens', and 'personal opinions on religious education'.

In conclusion, the teachers' opinions on the current state of Catholic childhood religious education are divided: in the negative point of view, teachers refer to 'lack of time in religious education courses', 'discord between teachers and non-believing parents', 'insufficiency of textbooks and reference books for teachers', and 'short of religious training for teachers'.

On the other hand, in the positive point of view, teachers point out 'good influence on children through informal education and religious atmosphere', 'parent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ligious education since childhood', 'religious education in harmony with fostering good human nature', and 'teachers' participation in various activities at parish helpful as teachers'.

My suggestions ar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ariety of educational models for religious education curriculums.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harmony between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and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a teacher education program to support teachers. Lastly, because religious education is

likely to be affected by educational environments, it is important to build religious atmosphere in the Catholic kindergartens.

Key Words: current status of Catholic childhood religious education, Catholic childhood education, childhood religious education